



長生不老

何事不可

---

Song Arirang, KIM Il Ju, 5 years old.

Handwritten Korean character: ㅈ

Handwritten Korean character: ㅊ

Handwritten Korean character: ㅌ

Handwritten Korean character: ㅍ

Handwritten Korean character: ㅊ

Handwritten Korean character: ㅌ

Handwritten Korean character: ㅍ

Airang, KIM Rye Hye, 5 years old.

## 민요 《아리랑》에 대한 동의서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민요 《아리랑》의 서정깊은 선율은 저에게 음악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심어준 첫 계기로 되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하는 새 세대 청년으로서 우리 민족의 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담고있는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비물질유산으로 등록되게 된 데 대하여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동의서를 보냅니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학생 **한** **숙**

2012.7.25

## Letter of Consent

My grandmother used to sing Arirang to me when I was a child, through which I could love Arirang music.

As a student learning music, I support for the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which conveys the emotional sentiments specific to the Koreans.

Student of Pyomgyang Kim Won G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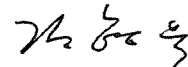
HAN Suk  
25<sup>th</sup> July 2012

## 동의서

조선사람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민요 《아리랑》을 사랑하고 즐겨불렀으며 이 민요를 잘 부른다고 하여 마을사람들은 대사때나 명절날마다 저에게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청하고있습니다. 《아리랑》은 나에게 생활의 길동무가 되어주었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아리랑》에 애착을 가지고있는 사람으로서 민요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록되게 되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지지를 표시합니다.

평안남도 맹산군 운포리 2반 김형욱



2012.1.17.

## Letter of Consent

As all Korean people, I also used to sing my favourite song Arirang since my childhood. Our neighbourhoods, commending my way of singing Arirang would ask me to sing it on many occasions like holidays or big events.

Arirang became the friend of my life and helped me win the respect by people.

As a person who affectionately loves Arirang, I give my full support to the nomination of Arirang to the Representative List.

Unpho Ri, Mangsan County, South Phyongan Province

KIM Hyong Uk

17th January 2012

## 동의서

나는 채광장에서 쇠돌을 캐다가도 방송에서 울리는 《아리랑》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따라부르곤합니다. 이따금 우리 안해들도 일터에 와서 《아리랑》을 불러주곤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아리랑》이야말로 정말 좋은 노래구나 하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곤합니다.

저는 《아리랑》을 인류의 대표적비물질유산으로 추천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동의서를 보냅니다.

대흥청년광산 3 선광장 로동자 김영제



2012.2.24



## **Letter of Consent**

As a miner, when I extract iron ore in the mine and listen to the Arirang song through radio, I often find myself unconsciously sing the song. Sometimes our wives come down to our working place to sing us Arirang. At such times we cannot help but wondering about the great beauty of the song.

I send this letter of consent for the inscription of Arirang on the Representative List.

Miner of 3<sup>rd</sup> Concentration Plant of Daehung Youth Mine

KIM Yong Je

24<sup>th</sup> February 2012

## 동의서

우리 어부들은 바다에서 만선기를 휘날리며  
돌아올때면 누구라 없이 《아리랑》을 가슴후련하게  
소리쳐부르곤하는데

아마도 이때의 감정은 바다사람이 아니고서는 느낄수  
없는것입니다.

조선사람모두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리랑》이  
인류의 대표적비물질유산으로 추천되게 된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추천하는데 대하여  
우리 사업소의 전체 로동자들을 대표하여 전적인  
동의를 표시합니다.

함경남도 신포시 신포수산사업소 현수석

2012. 7.20.



## **Letter of Consent**

When we, fishermen, return with a flag of full load of fish flying, we sing heartily and joyfully Arirang. It is a specific feeling that only sea people would experience.

We received with exhilaration the news of the nomination of Arirang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ICH of Humanity as it is the mostly loved song by all Koreans.

Therefore I extend my full support to the nomination of Arirang on behalf of all our fishermen.

Fisherman of Sinpho Fishery Office in Sinpho City, South Hamgyong Province

HYON Su Sok

20<sup>th</sup> July 2012

## 동 의 서

우리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여성로동자들은  
《아리랑》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즐겨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예술소조공연종목에서도  
《아리랑》은 항상 빼놓을수 없는 고정종목으로  
되고있습니다.

저는 《아리랑》을 인류의 대표적비물질유산으로  
추천하는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동의서를 보냅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예술소조책임자 리수임 수표 *리수임*

2012. 6.16.

## **Letter of Consent**

Weavers of Kim Jong Suk Pyongyang Textile Mill are ardent lovers of Arirang and sing it at anytime.

Reflecting their love, Arirang is on the regular program of our artistic circle's activities.

I am happy to hear the news of nominating Arirang to the Representative List and send this letter of consent on behalf of all workers of our mill.

Chief of Artistic Circle of Kim Jong Suk Pyongyang Textile Mill

RI Su Yim

16<sup>th</sup> JUNE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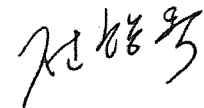
## 동 의 서

민요 《아리랑》은 우리 조선사람들의 고유한 생활감정을 그대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널리 전해져온 좋은 노래입니다.

지금도 《아리랑》은 우리 가두녀성들 속에서도 사랑을 받고있으며 명절때나 일상생활에서 항상 불리워지고있습니다.

저는 민요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록되는데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이 동의서를 보냅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동 녀맹위원장 전향옥 수표



2012. 2. 28.

## Letter of Consent

Arirang is the best song that typically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 emotions of all Koreans, widely practiced and transmitted since long time ago.

Even today it never fails receiving warm love by all house wives, and is always sung by us in our daily life as well as on festive occasions.

I send this letter of consent to fully support the nomination of Arirang 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CH of Humanity.

Chairwoman of the Women's Union in Sojang-Dong,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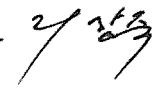
JON Hyang Ok

28<sup>th</sup> Feb 2012

## 민요 《아리랑》 추천 동의서

민요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의 대표적비물질 문화유산》에 추천하는것을 동의합니다.

민요 《아리랑》은 우리 유치원어린이들 뿐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도 민요 《아리랑》을 주요 공연종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리랑》이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리라는것을 기대합니다.

경상유치원 원장/양복수표 

2012. 2. 19



### **Consent for folk song Arirang**

I fully agree with nominating the element Arirang for the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rirang is widely sung by our kindergarteners as well as other young generation throughout the country.

Arirang is included in our main performance program of our kindergarten.

I look forward to inscription of Arirang on the Representative List.

Principal Kyongsang Kindergarten

RI Gang Juk

**19<sup>th</sup> Feb, 2012**

## 민요 《아리랑》에 대한 동의서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상징인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의 대표적비물질유산》으로 추천된다는 소식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있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가르치는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신성한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나는 우리 교육자들의 이러한 심정을 대변하여 민요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등록하는것은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평양 제 4 소학교 교장



2012. 2. 10.

## **Letter of Consent**

The news that Arirang is to be nominat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ouches the heart of all our professional educators.

It is our sacred duty and mission to teach the growing generation the traditions and culture specific to our nation.

Reflecting all the educators' feeling, I give a full support for the nomination of the folk song Arirang

Primary school No. 4

KIL KUM Sung

10<sup>th</sup> February 2012

## 민요 《아리랑》에 대한 동의서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저의 생활에서 지금 제일 큰 락은 우리 후대들에게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그대로 넘겨주는것입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대변한 노래이기때문에 젊은 청년들도 언제나 즐겨부르고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고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민요 《아리랑》을 추천하는 한 사람으로 되게 된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유네스코에 저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이 동의서를 보냅니다.

조선민족음악연구소 고문 조정림 수표 **조 정 림**

2011.11.10

## Letter of Consent

Reaching the twilight of my life, I find the greatest pleasure in transmitting our excellent cultural heritage to the young generations.

Arirang represents the emotions and feelings of our nation, thus becoming a favourite song among the youth.

I feel a great pride in nominating the favourite folk song of our people, and send the letter to UNESCO reflecting my feeling.

Adviser of Korean Traditional Music Research Institute

Jo Jong Rim

10<sup>th</sup> November 2011

민원 «아리랑»에 대한 동의서

저는 지금도 가끔 경암산에 올라가 우리 시리외사람들이  
편리한 «아리랑» 출판은 보면서 젊은 시절을 추억하곤  
합니다.

생애머리 저버시절부터 «아리랑»은 부끄러 전달해주  
나에게 있어서 이 민원은 남은 여생을 Kangri 바쳐 빛내고  
살은 소중한 재부입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예술인들이 전통적인 «아리랑»은 널리  
부르고 계승해나가기로 하겠다는 저기와 사명으로 간주하리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추천  
되는데 따라서 기본적으로 생김새 전령인 등등은 외치는  
표합니다

항해부도 사리외의 이름을 그늘 리한히 수포 리한히

2012. 5. 18

## **Letter of consent**

Even today I often go to Mt. Kyongam to see the women of my city dance to the tune of Arirang while recalling my younger days.

Since my maidenhood with pigtail hair, Arirang was my life. So I regard it as my duty to devote the rest of my life for the transmission of Arirang to our younger generations.

Therefore I am very happy to hear the news of nominating Arirang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fully support it.

Adviser of Sariwon Art Troupe, North Hwanghae Province

CHOI Chong Hui

18<sup>th</sup> May 2012

## 동의서

《아리랑》은 오랜 세월 구전으로 전해오면서 조선사람들이 널리 부르고있는 노래입니다.

내 나이 이제는 74 살 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유년시절 쌍태머리에 빨간 땃기를 드리워주며 불러주시던 나의 어머니의 서정깊은 《아리랑》노래가 귀에 들려옵니다.

나의 어머니는 고생스러울때도, 멀리 떠나간 아버지를 기다려 밤을 새울때도 《아리랑》을 부르며 우리를 키웠습니다.

한 마을의 봄순이랑, 노을이랑 함께 덕지강기슭에서 산나물을 씻으며 부르던 《아리랑》의 선률과 함께 저의 처녀시절도 흘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가수가 되어서도 고향에서 부르던 《아리랑》을 지정곡으로 정하고 수천번이나 불렀으며 관중들의 절찬속에 《아리랑》가수로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같은 나이 든 가수들은 새 세대들에게 이 노래를 배워주고 전해가는것을 의무로, 책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민요 《아리랑》은 조선사람들의 마음의 노래로, 우리 생활의 한부분으로 되고있습니다.

나는 민요 《아리랑》을 추천하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아리랑》의 보급과 전달에 내 한생의 마지막나날을 다 바치려고 합니다.

조선음악연구소 계춘희

2012.8.11

계 춘 희



## Letter of Consent

Arirang is the favourite song of the Korean people, which has been handed down for centuries.

While I am 74 years old now, I still remember my mother singing and teaching Arirang to me in my childhood. My mother used to sing it, tying a red ribbon to my pigtails, waiting for my father and cooking.

I used to sing it with my friends, Pom Sun and No UI, in the riverside and my maidenhood was spent singing Arirang.

So when I became a singer I chose Arirang as my first song and sang it many, many times, thus winning respect of people as a Arirang singer.

Now many other singers also hold it their duty to teach and transmit Arirang to the young generations.

As a matter of fact, folk song Arirang is so close to my heart that it becomes part of my life.

I think it is a unanimous desire of many Arirang singers and professionals to see it nominated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I give full support for the nomination of the folk song Arirang and will continue dedicating myself to its transmission.

Kye Chun Hui

Place?

11<sup>th</sup> August 2012

## 민요 《아리랑》에 대한 동의서

민족음악과 함께 한생을 살아온 나에게 있어서  
민요 《아리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생의 한  
부분과도 같이 귀중한것입니다.

더우기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날 저의  
념원은 민족의 자랑인 우리의 《아리랑》을 젊은  
세대들이 대대손손 전해가며 세상에 널리 빛내게  
하는것입니다.

저는 후손들을 거느린 로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민요 《아리랑》을 인류의 대표적비물질유산으로  
추천하는데 전적인 동의를 표시합니다.

조선음악연구소 실장 교수 박사 박형섭 수표 *박형섭*

2011. 12. 3

## Letter of Consent

My life was that of traditional music and Arirang is not merely song for me but it is a part of me.

Now I became old with my hair quite gray, and my current desire is to see to it that Arirang is well handed down to young generations and show off Arirang.

As one of the old generations, I express my full support to the nomination of Arirang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Director of Korean Traditional Music Research Institute

Professor, Doctor PAK Hyong Sop

3<sup>rd</sup> December 2011

## 동 의 서

나는 어린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가 자주 부르곤하던 민요 《아리랑》을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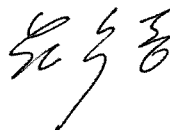
그리하여 나는 이 노래를 아이때부터 잘 알고 있었고 즐겨 부르곤 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의 민요를 발굴하고 고증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민요 《아리랑》을 우리 지방 평안남도 룡강군에서 뿐아니라 전국에 분포되어있고 지방마다 가사와 선율이 다르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 이 노래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사랑하며 언제나 즐겨부른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노래가 우리 민족의 넋과 숨결이 깃들어있고 조선인민의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적감정과 정서가 깊이 스며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요 《아리랑》을 세계비물질유산으로 등록되리라는것을 기대하며 추천을 동의합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부교수 학사 윤수동



2011. 10. 29.

## Letter of consent

I grew up listening to the song of Arirang which my grandparents and father and mother used to sing very often.

So Arirang is in me and I love singing it. With time I came to know that it is not only our Ryonggang County, North Phyongan Province but also many other parts throughout our country which have their own versions of Arirang different in themes and melodies. I also keenly realized that Arirang is ardently loved and sung by all Koreans.

I think that is because Arirang embodies the soul and spirit as well as the lofty national emotions and feelings of us Koreans.

I express my agreement on the nomination for inscription of the song on the Representative List.

Vice- chairman of Central Committee of the  
General Feder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Arts

Associate professor, Bachelor YUN Su Dong

29<sup>th</sup> October, 2011



### **Letter of consent**

Arirang is the pride of the Korean nation as well as that of my city, Pyongyang.

The melody of Sodo Arirang has left erasable marks to the time-honored history and brilliant culture of Pyongyang. Sodo Arirang is thought to be the oldest version of Arirang, and thus enjoys warm love by the citizens of Pyongyang.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Pyongyang, I express, herewith, support to the nomination of Arirang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Chairman of Sodo Arirang Safeguarding Society

PAK Song Bong

27 May 2012

## 《해주아리랑》에 대한 동의서

조선민족을 상징하는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의 대표적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추천된다는 소식은 조선인민들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해주지방에도 이곳 지역 주민들이 즐겨부르는 《해주아리랑》이 있습니다. 해주지방인민들은 이 노래를 자기들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기면서 로동의 실참이나 저녁시간마다 부르곤 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 지방의 남녀로소가 다 잘 알고 있으며 로인들은 이 노래를 자기의 자손들은 물론 새 세대들에게 배워주며 전달해가는것을 의무로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해주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의 대표적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것은 우리 지방의 자랑으로 될것이며 세계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보여주는 좋은 계기로 될것입니다.

우리 해주지방인민들은 이 추천사업이 인류의 문화적재보를 보다 풍부히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해주아리랑의 추천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동의편지들을 《해주아리랑보호회》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해주지방주민들을 대표하여 동의서를 보냅니다.

《해주아리랑보호회》 회장 이름 김철현 수표 김철현

2012년 4월 20일



## Consent for Haeju Arirang

Our people in the Haeju area are now ecstatic at the news that Arirang symbolic of our nation is to be nominat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Haeju people have their favorite Haeju Arirang. They have sung the song generation after generation, regarding it as part of their life. They sing it any time, at break or in the evening. Men and women, old and young, all the people like to sing the song and elderly people take pride in passing it on to their grandchildren as well as to their children and regard this as their duty.

The inscription of Arirang, including Haeju Arirang, is our pride and will provide a good opportunity to show off our nation's excellent culture.

Expecting that this nomination will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enriching the cultural wealth of humanity, Haeju people are expressing their support to the nomination of Haeju Arirang through their letters of consent sent to the Arirang Safeguarding Society. I send this letter on behalf of the people in the Haeju area.

Chairman of the Haeju Arirang Safeguarding Society

KIM Chol Hyon

20 April 2012,

## 《강원도아리랑》에 대한 동의서

우리 강원도지방에는 예로부터 강원도아리랑, 통천아리랑, 고성아리랑, 삼일포아리랑, 평강아리랑, 고산아리랑을 비롯하여 각 지역들의 여러 아리랑들이 불려왔습니다.

우리 지방의 로인들은 어린시절에 자기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랑하며 즐겨부르던 자기 지방 아리랑의 가사와 곡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고 젊은이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자주 아리랑을 부르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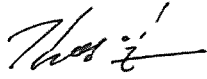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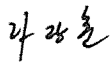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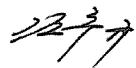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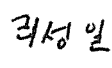
아리랑은 우리 지방사람들의 생활속에 함께 있으면서 이곳 사람들의 성장과 떼어놓을수 없는 류다른 감정과 추억을 안겨주고있습니다.

조선사람이라면 그 어디에 살든 누구나가 다 우리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을것입니다.

최근에 아리랑이 《인류의 대표적비물질문화유산》으로 추천된다는 소식에 접한 강원도내 인민들은 자기들의 충동된 마음을 편지에 담아 우리 앞으로 편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주민들속에서는 자기 지방들에서 전통적으로 불려오던 강원도아리랑, 통천아리랑, 고성아리랑, 삼일포아리랑, 평강아리랑, 고산아리랑들에 대한 관심이 여느때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강원도주민으로서 이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싶은 심정에서 이들의 동의를 대표하여 이 동의서를 보내게 됩니다.

강원도안의 전체 주민들은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록되면 비물질문화유산보호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라고 믿으면서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강원도아리랑보호회 회장	이름	김영일	수표	
통천아리랑보호회 회장	이름	라광훈	수표	
고성아리랑보호회 회장	이름	서민준	수표	
삼일포아리랑보호회 회장	이름	최성	수표	
평강아리랑보호회 회장	이름	김주주	수표	
고산아리랑보호회 회장	이름	리성일	수표	

2012년 2월 26일

## Consent for Kangwon Provincial Arirang

Kangwon Province is blessed with lots of Arirang versions in different areas such as Thongchon, Kosong, Lagoon Samil, Phyonggang and Kosan. Old people in our province often sing their favorite Arirang versions, thus recounting their childhood memories to youngsters. They tell them how they learned the songs from their forefathers and how they felt as they heard the pleasant tunes. Our local people regard Arirang as something inseparable from their life and developments and as a source of inspiration.

We think every Korean shares the same opinion.

The news of the nomination of Arirang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ICH of Humanity has stirred up the provincial people and they are sending us letters one after another. It has stimulated more than ever before their interest in Kangwon Provincial, Thongchon, Kosong, Samilpho, Phyonggang and Kosan Arirangs, which have been sung traditionally in corresponding localities.

Sharing the same feeling with them, we send this consent on behalf of them.

All the people in the province believe that the inscription of Arirang to the Representative List will inject fresh vitality to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ully support it.

Name, Chairman of the Kangwon Provincial Arirang Safeguarding Society

Name, Chairman of the Thongchon Arirang Safeguarding Society

Name, Chairman of the Kosong Arirang Safeguarding Society

Name, Chairman of the Samilpo Arirang Safeguarding Society

Name, Chairman of the Phyonggang Arirang Safeguarding Society

Name, Chairman of the Kosan Arirang Safeguarding Society

26 February 2012

최근 "아리랑"에 대한 동의서

우리 고장에도 우리 지방사람들의 감성라 정서는  
보존영하여 불러와진 « 단천아리랑 »이 있습니다.

지 역시 흥겨운 고향인 아리랑곡조는 특이 향토에  
대한 사랑을 빼고 고향을 빼앗습니다

저는 고향사람들 모두가 사랑하고 조선사람들 모두가  
즐거워하는 "아리랑"에 대한 동의서는

단천지방의 주민들은 채택하여 오늘도 있게  
되기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단천아리랑 노래 » 협조 김성현  
대표 김성현

2012. 6. 4

## **Letter of Consent**

My province has Danchon Arirang. It represents the specific emotions and feelings of people living in our province.

Listening to the tune of Arirang I came to know the love for my homeland and learned how to work.

Arirang is loved and sung by all Koreans.

It is great honor for me to send this letter of consent to the nomination of Arirang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Chairman of Danchon Arirang Safeguarding Society

KIM Song Chol

4<sup>th</sup> June 2012

인수 «우리강»에 대한  
동의서

백살구꽃이 활짝 피는 하얀 봄날 우리 고향을 찾  
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전통적인 «희령우리강»을  
부르며 걸레고 한때를 보내는 희령사람들을 볼수 있습  
니다.  
우리 고향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우리강»의 애호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만큼 «희령우리강»은 희  
령사람들의 생활과 떼어놓기 생각할수 없습니다.  
저는 희령지방의민들의 이러한 사랑을 대변하여 «우리강»  
이 유네스코에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대중력목록»에  
추천하는등 대하여 전적인 동의를 표시합니다.

«희령우리강보호회» 회장 강영서 수로 강영서

2012년 4월 12일

### **Letter of consent**

When people visit in beautiful spring season our county scenic with white apricots in full bloom, they would see our local people enjoying their time with singing Heoryong Arirang.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all our citizens are ardent fan of Arirang. So we cannot think about our life without Arirang.

In the name of our citizens I extend my full support to the nomination of Arirang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Chairman of Heoryong Arirang Safeguarding Society

KANG Yong So

12<sup>th</sup> April 2012

## 민요 《아리랑》에 대한 동의서

민요 《아리랑》은 우리 민족성원 누구에게나  
그려하겠지만 특히 우리 여성들의 생활에서  
떼어놓을수 없는 노래로 되어왔습니다.

서정적이고 은근한 《아리랑》의 곡조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키워가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민족의 래일과  
밝은 미래를 책임졌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자각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의 전체 어머니들의 심정을 대표하여  
민요 《아리랑》이 우리 민족뿐만아니라 전 인류의  
관심사로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동의서를 보냅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2012. 4. 28

로성홍



## Letter of Consent

Arirang has been inseparate from everyone, in particular from our women.

Its lyric and gentle melody gives our mothers a sense of responsible to hand down to our new generations.

On behalf of mothers, I send a letter of consent, hoping that Arirang would constitute is a matter of common concern not only to our people but also to the entire humankind throughout the world.

Chairwoman of Central Committee of the Democratic Women's Union of Korea

RO Song Sil

28<sup>th</sup> April 2012


## 동 의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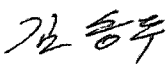
민요 《아리랑》은 조선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의 하나입니다. 조선민족의 전통민요들가운데서 《아리랑》만큼 조선사람들과 친숙한 노래는 찾아보기 드뭅니다. 그것은 《아리랑》이 오랜 역사를 가진 노래로서 조선민족의 고유한 음악세계와 생활관습을 담고있으며 특히는 민족수난의 시기에 조선민족의 넋과 정신을 굳건히 고수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기때문이다.

《아리랑》을 떠나서 조선민족을 생각할수 없다고 할만큼 조선민족은 《아리랑》을 귀중한 민족의 문화재보로 간주하고있습니다. 선조들의 창조적재능이 깃든 민족의 고유한 문화전통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숭고한 의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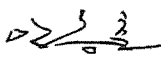
《아리랑》을 세계의 대표적인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것은 조선민족의 자랑과 긍지로 됩니다.


우리들은 《아리랑》을 세계의 대표적인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것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적재보들을 대를 이어 잘 보존하려는 조선민족과 전 인류의 공통된 리념과 지향에 부합된다고 보면서 세계의 대표적인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추천하는데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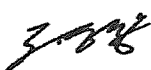
민족유산보호지도국 국장: 룡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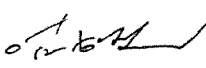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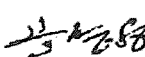
문화상: 홍광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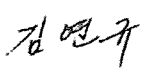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안동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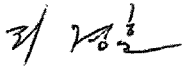
조선음악가동맹중앙위원회 서기장: 박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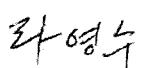
조선문화보존사 사장: 조영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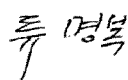
조선민족음악연구소 소장: 엄하진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소장: 공명성 

국립교향악단 단장: 김연규 

국립민족예술단 단장: 리경훈 

집단체조창작단 단장: 라영수 

민족문화재정보기술교류사 사장: 류명복 

2012년 8월 20일

## Letter of Consent

Arirang is a folk song most popular among Korean people. There is no folk song which is as familiar as Arirang, because it has a long history, carries music world and customs specific to the Korean nation and in particular played a big role in safeguarding the soul and spirit of the nation in the period of national tribulation.

We treasure the song as much as we say that the Korean nation is unthinkable without Arirang. It is our noble duty to keep the nation's cultural tradition associated with the creative talents of ancestors from fading away.

It is great pride of the nation to inscribe Arirang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Considering that the inscription fully conforms to the common ideal and aspirations of the Korean nation and entire humankind to conserve the world's diverse cultural treasures generation after generation, we consent to the nomination of Arirang as the worl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rector General, National Bureau for

Cultural Property Conservation: RYONG Ju

Chairman, Education Commission: KIM Sung Du

Minister, Ministry of Culture: PAK Chun Nam

Chairman, Central Committee,

General Federation, Unions of Art

and Literature of Korea: AN Tong Chun

Chairman, Central Committee

of the Musicians Union of Korea: RI Il Nam

Director, Korean Culture Preservation

Centre: JO Yong Phal

Director, Korean Traditional

Music Research Institute: RI Il Nam

Director, the Folklore Research Institute: KONG Myong Song

Head, State Symphony Orchestra: KIM Yon Gyu

Head, State National Art Troupe: RI Kyong Hun

Director, National Cultural

Property Information Technology

Exchange Agency: RYU Myong Bok

Curator, Korean Folklore Museum: HONG Song Chol

August 2012

